

경희의 나이가 불혹을 넘었다. 역사의 절곡을 밟아온 세월 만큼 우리 학원의 문화적 성과도 그 깊이를 더하여 이제는 '경희문화'라는 하나의 커다란 산을 이루었다.

이에 본보는 경희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경희문화의 형성되던 시기의 상황, 문단에서의 역할, 현재의 양상 및 아직 산적해있는 오류들을 알리고 제1회 문단문학상 수상상자의 대담을 준비하였다. 이번 대담은 경희문화의 미래, 나아가 길까지 짚어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자: 김재홍(문리대·국문학) 교수, 조태일(동문·시인) 평주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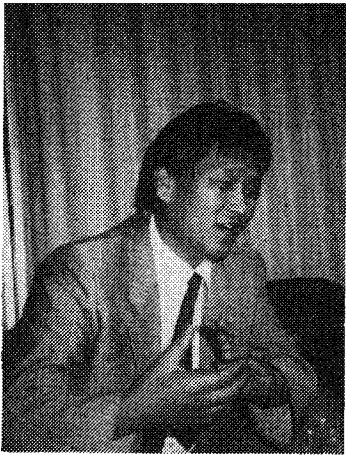
▲때: 1991년 5월 18일 오전 8시

▲곳: 본사 회의실

▲기록·정리: 이금주 기자

(편집자註)

교수·학생·매체의 삼위일체



경희문화는 교수와 학생의 하나된 행동으로 더욱 발전했던 것입니다

◇조태일 교수



사회적 비판은 타월 하나 아직 작품의 개성이 부족한 운동권 문학

◇김재홍 교수

문단에 꽃피운 경희문화, 이제 결실 거둘 때

중도 우파 성향 지닌 제3세력으로 등장해 문예장학생제도·관련학과 신설 지원 시급

한국현대문학에 큰 맥을 이루던 김광섭, 황순원, 조병화, 주요섭, 양주동, 김진수 등의 선배들이 학계에 재직하면서 경희문화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의 영향을 받아 이항아, 전상국, 이성부, 김용성, 김영석, 조트리오라고 말하는 조태일, 조세희, 조태일 등의 기라성같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저 자신 개인적으로 황순원교수님으로부터 문학인의 자세랄까, 어떤 근엄성을 배웠고, 김광섭 교수님께는 갈라진 현실인식과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는 법을 배웠으며, 서정범 교수님께는 무당, 무속등의 강의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심성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김: 현재도 교수들의 끊임없

는 연구와 학생들의 학회, 동인모임을 통한 창작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희문화이, 그 많은 인재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 거의 전무하던 상태에서 김중희씨가 평론가로서 큰 활동을 하고있어 무척 다양한 일입니다.

조: 그럼 이제 현재 경희문화의 양상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현재 경희문화는 문단권문학과 운동권문학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체적으로 예술지상주의가 쇠퇴되어가고 있는 지금, 예술은 자본

주의 폐해에 따른 이기주의의 팽배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형상화시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그렇습니다. 모든 문학은 개인으로 시작하여 사회·역사의 식으로 나가고, 이것이 예술의식과 만나 고도의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어내어 자신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운동권문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잘 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예술작품 하나하나에 개성이 없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작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문단내 문인들을 볼때 조만간 극복되리라 봅니다.

조: 그러한 자신들의 문예활동

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운동권문학이건 문단권문학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활동무대, 즉 매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경희문화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재홍교수의 '시와 시학' 창간은 매우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예, 1969년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시인'지를 창간했었죠. '시인'지는 시대적 어려움속에서도 운운주의를 거부하고 김지하, 김춘수 등의 작품을 배출한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이것에 이어 올해 창간된 '시와 시학'도 한국문단과 경희문화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전통의 맥을 이을 생각입니다. 국문학계에서도 범람하고 있는 외국문학잡지를 물리치고 우리문학에 애국심과 민족혼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조선생남께서는 경희문화의 중흥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독 국문학과는 각종 문학예술상에 입상을 하더라도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희문화의 연구·학문 등 이론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인 창작에는 뒤떨어진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 예, 제 생각으로는 몇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수학생에 대해 문예장학생으로 무시험입학을 허용해야 하고, 관련학과, 즉 문예창작학과 등을 만들어 너무 학술적인 교과과정의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전엔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해 줬고, 총장실에서 경희문화에 대해 토론도 하고 다 회의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당국의 경희문화에 대한 열의가 식었는지 문예창작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경희문화가 60·70년대에 꽃을 피웠다면 이제는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따른 학교당국의 집적적이고 능동적인 배려가 요망됩니다.

조: 또한 대학주부가 경희 문

대동제 문화행사 안내

서울캠퍼스

◆27일(월): △당산제 및 마라톤 출발=오후2시, 교문앞 △씨름 4강전 결승=오후4시, 노천극장 △예비역 축구결승=오후5시, 노천극장 △전야제 및 과학생태경연대회=오후6시, 노천극장, 1과 1팀 참가로 과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형식 △통일백일장=노천극장 앞 잔디에서 진행, 오후 29일 오후4시까지 동장소에 제출(시, 수필, 단편소설)

◆28일(화): 학부 발족식 및 통일노래한마당=오후2시, 노천극장, 창작곡·개사곡·노래운동 등 △동아리 학원제=오후6시, 노천극장, (1부)-김빛이 및 개막 축하행사, 동아리 장기자랑, 동아리 가요제, 우리 동아리 재주꾼, 글자맞추기, 지진뽕, 음료수 빨리 마시기 대회, 퀴즈대회 등 (2부)-광주항쟁에 관련된 집체시, 집체곡, 노래, 슬라이드

◆29일(수): △MBC노조 손석희씨 강연회=오후1시, 노천극장, '언론민주주의의 과제와 예비노동자인 청년학생의 자세'에 대하여 △자주여성 민주여성 대동

한마당=오후3시, 노천극장, 단대 여학생회 장기자랑, 둘이서 하는 홀라파트 경연대회, 퀴즈한마당 등(총여학생회 주최) △한중연대 한마당=오후6시, 노천극장, 김빛이, 대동놀이, 초청공연, 햇빛행진 △통일운동대회 및 조용술사님 강연회=오후4시, 도서관 시청각실, 조국통일 학우회로 신청(문의:961-0734)

◆30일(목): △경희가족 한마당=오후2시, 노천극장, 양 캠퍼스 함께, (1부)-개회식, (2부)-유원단 시범, 경희가족 경연대회, 초청공연 (3부)-경희가족 대동단결투쟁(박대트리기 및 불시위), 차전놀이(회기삼거리에서)

수원캠퍼스

◆27일: △경희대학 태권도시범단 시범=오전12시, 2호관 민주광장 △오상사상제=오후12시30분, 1호관 시청각실, 무역학과 학생회 주최 △과학생태경연대회, II부=오후3시, 1호관 대운동장, 유원단공연, 민요공연(비나리), 초청공연, 영상음악(경희TV)

문화 토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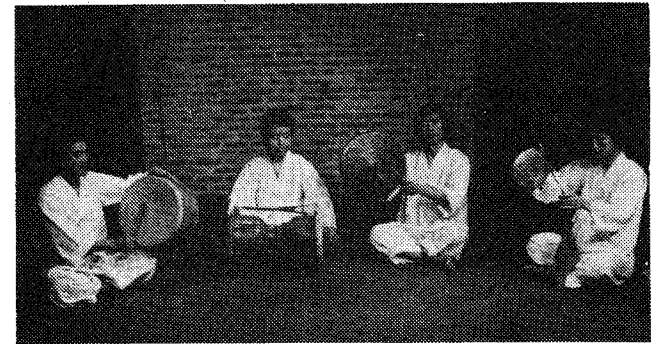
수많은 해외공연, T.V화면에서는 자주보지만, 왠지 그 신명나는 공연을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던 '사물놀이'(김덕수·사물놀이)를 만나기 위해 이화여대 근처의 5층계단을 올라가면서 장립당사의 상황이 궁금해졌다.

78년 2월 창단 당시 김용배, 김덕수, 이평수, 최정호로 구성된 '사물놀이' 단원들은 모두 5, 7세에 남사당과 걸립패에 입단하여 어린시절을 보낸, 이 시대의 마지막 유망집단이다.

물어볼 것도 없이 '사물놀이'(본래의 사물놀이란 말은 이 때의 창립당시 고유이름이며, 지금은 소규모의 농악을 이르는 말로 보통명사로 되었다)에 대한 연혁 및 활동내용은 팸플릿들을 통해

김덕수 패 사물 놀이

패 정리가 잘 돼 있었고, 한쪽 벽면 달력의 빈칸에는 해외공연 일정이 빼곡했다. 기자가 찾은 그날도 김덕수씨는 인도네시아 공연 중이었고, 지난 82년부터 시작한 해외공연은 이미 3백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사물놀이단(Samulnorian)의 평적인 팬들)이라는 새로운 애호가 클럽도 만들어



◇지난 1978년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가진 '사물놀이' 최초의 연주모습

해외공연 3백회 돌파 눈앞에 뒤전수생 모집 등 전문 예술성 우선

졌다고 한다.

평소 궁극해오던 '풍물활동을 하면서 왜 열린공간으로 나오지 않는지, 좀더 많은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해 연구교육부를 맡고있는 김동원씨께 문지않을 수

씨는 이어 80년대 이후 활발한 대학, 노동현장의 풍물극단이 공동체감 형성이라는 커다란 가치 아래있지만, 조악한 예술성, 전문성으로 인해 오히려 풍물의 감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역설했다.

철저한 예술성과 전문성이 갖춰진 풍물은 일반대중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어쩔 일반대중에게 더욱 친밀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물놀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을때, 그래서 일반대중이 스스로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벽이 허물어졌을때 진정한 가능성 있을 지 않을까.

(김미령 記者)

SK 신성매그네틱(주)
보통인 - 279-1611 / 5 / 24시간 상담실 - 275-3531

지금 전세계 10억 7천만명이 스마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070,000,000 /
세계 제일의 오디오 테이프 메이커 신성매그네틱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카세트 테이프의 숫자입니다.
세계 70여개국으로 수출되어 전세계 수요의 무려 27%를 공급하는 스마트—
스마트는 품질의 세계에서도 명실상부한 No.1 브랜드로 통합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이룩된 오늘날의 스마트 품질, 스마트 명성 / 신성매그네틱은 세계가 인정하는 오디오 테이프 전문 메이커입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상표—스마트
생생하고 선명한 소리로 지구촌 곳곳에 자랑스런 메이트인 코리아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 표준제품
● CD 전용용

스마트
SUNKYONG 신성그룹